

국내 화장 비율 지난해 첫 80% 돌파

경남 사천 98.3%로 가장 높아...충남 청양 41.9% 최저

우리나라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사망자 5명 중 4명은 화장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 화장률이 80.8%로 최종 집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2005년 52.6%로 대장부를 넘어선 이후 2011년 70%를 돌파한데 이어 4년 만에 80%를 넘어섰다.

2015년 성별 화장률은 남성 83.5%, 여성 77.5%로, 남성이 여성보다 6.0%p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6.6%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4.5%였으며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7.5%로 나타났다.

시도별 화장률은 부산이 9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0.2%, 울산 88.1%, 경남 87.1%, 서울 86.7%, 경기 86.2%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4.2%, 충남 65.6%, 전남 67.6%, 충북 68.3%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6.9%였으나 비수도권은 76.8%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보다 10.1%p 높았다.

2015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화장률이 높은 곳은 경남 사천시 98.3%였고 경남 통영시 95.3%, 부산 동구 94.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충남 청양군 41.9%, 전남 장흥군 45.7%, 경북 영양군 47.6%, 경북 봉화군 47.9% 등은 화장률이 낮았다.

올해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화장 시설은 지난 9월말 개원한 구미시 추모공원을 포함해 총 58곳이고 화장로는 총 335개가 공급돼 있다.

2015년말 기준 연간 최대 화장능력은 29만 4840건(1일 평균 819건)으로 2015년 사망자(27만 5895명) 중 화장한 사망자(22만

2895명, 1일 평균 619명)을 고려한 국내 화장 시설은 부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를 경계도, 서울 등 화장 수요보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주민은 화장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거리 이동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관의요금을 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례식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영인장과 '전자정보시스템(e-하늘)'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법외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시설장사시설까지 확대해 가격정보를 등록·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가을에 물들다

인천신정중, 가을 작은 음악회 열어

인천신정중학교(교장 이미영)는 10월 17~21일까지 일주일간 '학교! 가을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신정 가을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한 주간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해설실 옆에서 학생과 교직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이 행사는 원요일에 밴드부의 공연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댄스, 비드박스를 공연해 학생들과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고, 화요일에는 이웃학교인 명선초에서 사랑의 쿠키와 에코백 나누기를 오가리나 연주와 함께 진행해 지친 가을 심정을 해 나눈 너그러움과 봉사정신과 배려를 뽐내 펼쳤다.

목요일에는 오페스타라 부처에서 오페라 그리핀 연주곡-비치,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1악장, 라데츠키 행진곡 등을 연주해 가을이 익어가는 10월에 근사한 음악을 연주해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추억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밴드부와 클래식기타공인, 팝송부르기 등 학생들 위주로 공연을 해 학생들의 많은 흥미를 끌었다.

이번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나누고, 지역사회 초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학생들의 긍정적 인 정서함양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많은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은실 기자 as@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21세기 디자인하라'

상인천여중, 미래핵심역량 강화 위한 교사 연수



상인천여자중학교(교장 김인숙)에서는 10월 24일 오기영 교수(충남대 컴퓨터공학과)를 강사로 초청해 '21세기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초청된 오기영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화두를 던지면서 교사 연수를 진행

했다.

지난 여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났던 지역과 2003년 태풍 매미를 교훈 삼아 태풍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태풍 차바의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마산 지역의 비교로 시작된 연수는 미래 사회에 대해 막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살아

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무한한 기회를 낳을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오기영 교수는 "자동차, 자정장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 지향적 역량을 키워 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키워 로봇공학, 인공지능, 생명과학, 사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와 융합시킬 때 아이들은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다가를 미래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 지향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상인천여중은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업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사 개개인도 노력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함께 협업하는 교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협의회 시간을 활용하여 좋은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과 정보 교류, 동료교사들에 대한 수업 사례 설계 등으로 수업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은실 기자 as@

대구 달성군, 행정 생산성 가장 높은 지자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올해 전국 187개 시·군·구 가운데 행정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7일 부산 백산스코에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열어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 달성군 등 28개 지자체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올해 오프라인 전국 187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 생산성이 가장 높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달성군은 기업활동과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고 전년대비 사업체 증가율 및 취업자 증가율이 타 기관 평균 대비 2배 정도에 이르는 등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은 충북 청주시와 충북 증평군, 대구 수성구가 선제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영어의 두려움 없애다

인천명현초, 영어 뮤지컬 'Hair Spray' 공연 성료

인천명현초등학교(교장 최희명)에서는 10월 26일 학생 영어 뮤지컬 동아리의 공연이 개최됐다. 명현초등학교의 영어영구 예술교육연구소가 함께 6학년 학생 10명을 지도해 이번 영어 뮤지컬 'Hair Spray' 공연의 막을 올릴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지난 9월부터 자발적으로 영어 뮤지컬 동아리에 지원해 오디션을 거쳐 연기 및 영어 대사와 노래를 배우고 익혔다. 처음에 영어로만 진행되는 본 뮤지컬 수업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토로하던 학생들도 수업이 진행되며 영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으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걷고 자신감을 얻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영어영구 예술교육연구소의 교사 박민정 선생은 "명현초의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친구들과 관계형성이 유난히 잘 돼있는 학생들이 즐기며 뮤지컬을 완성해 나갔다"고 지도 과정을 회상했다.

참여한 6학년 정은서 학생은 "처음에 영어로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무렵이었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어요.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 보람 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라고 공연 소감을 전했다.

최희명 교장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명현초등학교의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인 영어뮤지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계시민으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활동과 교육활동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은실 기자 as@

영종중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르네상스 학습자로展' 교내 전시

영종중학교(교장 문관식)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의 체험 기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10월 24일~11월 4일까지 2주 동안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르네상스 학습자로展을 교내 갤러리에 전시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거인 갤러리에서 소장한 다양한 작품을 5월 인천광역시 학생 교육문화회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교내에서 학생들이 전시를 하게 했다.

문관식 교장은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작품 감상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욕구 충족과 학생 눈높이에 맞춘 거인 갤러리의 기획 전시 작품 감상과 체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한 1학년 송다빈 학생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 끼, 뜻을 수 있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말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미술작품 감상 기회를 통해 문화인목을 넓히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해 본다.

청담동 도심형 품격주택
신원아침도시 마인

청담동의 대격!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치원 입점

SAT수업 입점

여학원 입점

국기보통 상권

청담동

신원아침도시 마인

청담대표상가 신원아침도시 마인 02) 540-1160



인천용학초-인천 굿네이버스에 모금 전달

인천용학초등학교(교장 김미숙)의 4학년 학생들은 '알뜰 바자회'를 열어 추덕도 쌀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변을 따뜻하게 했다.

굿네이버스와 인천용학초등학교(교장 김미숙)는 10월 27일 인천용학초등학교에서 4학년 알뜰 바자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일부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4학년 학생들은 입을 모아 "내가 직접 바자회에서 한 돈으로 기부할 수 있어 기쁘고 고맙습니다. 4학년 선견정 교사는 "작은 액수지만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

해 얻은 돈을 기부해, '기부'의 주체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려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 1991년 8명의 멤버로 시작해 소외된 이웃과 가까이 호흡하며 3개 모금과 국내 11개 시·도 본부를 중심으로 '이웃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NGO 단체다.

인천용학초등학교에서 지난 20일에 진행된 '4학년 알뜰 바자회'를 통해 전달된 모금액은 국내 및 해외 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은실 기자 as@

결혼 안하고 아이 낳고

8월 출생아 역대 최저

혼인 건수가 줄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만39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

된 2000년 이래 8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8만 31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6% 줄며 역사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8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지만 1~8월은 총 18만8200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